

단 한 해 동안에 비약적 성장을 일궈낸 비결

지난해 알곡 1,000t을 증수한 선천군 석화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담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담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은 지난 시기 농업 부문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농장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단위가 지난해에 크게 도약하여 간식지는 백수십정보가 왕가 물피해를 입은 조건에서도 알곡 1,000t을 증수하였다.
 증수된 알곡량도 대단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과학농사시대인 오늘날 당정책을 집행하고 관철하는 자세와 일본세에 따라 한해 농사에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것이다.

없이 돌아오며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았다. 그러다가 한곳에서 눈을 번쩍 뜨게 되었다. 어느 농장 막바지작업반의 일부 포진들에서 비밀박막을 씌워놓은 모판자리들을 본것이었다. 무엇인가 짙어있는게 있어 알아보니 까닭이 있었다. 그 전해에 이른큰모를 키우는 온실면적이 모자라 벌수없이 포진에 비밀박막을 씌워 땅결면을 빨리 녹여 모판을 만들고 몇가지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모를 길렀는데 온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것이었다.

받아들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씨뿌리 기준비를 레전보다 앞당겨 시작하였다. 땅결면이 녹는 차례로 이른큰모를 키울수 있게 차단재를 깬 모판을 무려 7,000개 만들었다. 이어 벼모판씨뿌리기를 단 이를 동시에 외곽과 끝내고 비밀박막과 함께 매를 두들리게 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마음을 고쳐먹고 결음을 다시 하였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가을철에 모든 농장원들이 담당포진에서 팔곡을 제 손으로 하도록 하면 낱알리실을 없애면서 도 종전에 50여일 걸리던 농사결속을 열흘에 끝낼수 있다는 요긴한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근소출을 내도록 농장원들을 방법론있게 이끌었다.
 모든 농장원들에게 담당포진에서의 알곡 수매계획에 대하여 잘 깨우쳐주어 옮겨 시달린 문제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처음 농장에서 담당포진에서의 알곡 수매계획이 관정수확고에 따라 논과 밭에서 각각 얼마까지라고 하자 일부 농장원들은 참으로 아름차게 생각하였다. 만약 이런 정신상태로 한해 농사를 한다면 그들의 손에서 가꾸어진 곡식이 팔릴리 만무하였다. 때문에 일꾼들은 이 문제를 두고 고심을 하였다. 그 과정에 논벼와 강벼이포진의 평당포기수를 놓고 깨우쳐주는 방법이 궁상이 미처였다.

30%인가, 100%인가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당정책을 즉시 집행하고 그 관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지난해 이 농장에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담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주신 과업을 받들고 당년에 이른큰모를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준 전후과업을 10년이 아니라 1년동안에 수행하여 《마식령속도》를 창조한것처럼 농업부문에서도 새로운 시대속도가 응당 창조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관리위원장이 농장의 작업반장, 기술원들을 데리고 앞선 농법도입에 한해 먼저 경험을 쌓은 도안의 여러 농장들에 대한 참관을 떠나게 되었다.

누구나 무를 쳤다. 자기 농장실정에 얼마든지 도입할수 있는 모기리방법이 있었나? 그리고 모리도 리지도 단속하고 신비한것이 없었다.
 그러나 결코 우연한 소득이 아니었다. 만약 부딪친 난관앞에서 조금만 주춤거려도 문제의 30%계선으로 다시 물러앉을수 있었다. 하지만 당정책을 일단 집행하였으면 할말없이 무너져도 무조건 100% 결과사실결과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드립 없었기에 얻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머칠이 지나서는 일꾼들부터가 초조한 심정으로 모판에서 썩어 터나오기를 기다렸다. 일부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한쪽으로 수성모판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였지만 그들은 당에서 내놓은 과학농법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드디어 예정된 기일이 되자 모든 모판에서 이른큰모의 싹이 일제히 돋아났다. 첫해부터 더 면적에 대담하게 받아들인 새 농법의 성공을 예고하는 광경이었다.

모든 농장원들속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요구와 의견을 본인들이 직접 서면으로도 제출하게 하였다. 의견을 받으면 즉시 해답을 써서 내려보내주었는데 그것을 쌓아 놓으니 키가 훨씬 넘었다.
 이쪽 일꾼들은 또한 필지별로 부침조건이 각이한 포진들을 공명정대하게 분담하는 사업도 포진담당책임제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았다. 때문에 군적으로 부침 땅이 제일 많지 않은 구석진 포진의 한 패기를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농사경험이 많은 오랜 농장원, 초급일꾼들과 함께 각이한 포진들의 모든 부침조건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하였다.

가령 어느 강벼이품종을 심는다면 평당 15포기가 들어가는데 그중 10포기는 분배뚝고 나머지 수매용이 된다는 식으로 알기 쉽게 인식시켰다. 이것은 그대로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m당관리제를 실시하고 포진마다 포기농사를 지어 윤근소출을 낼데 대한 당정책의 직접적인 구현과정으로 되었다.
 일꾼들은 이렇게 농장적으로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한 잠정적 한조항조항을 어떤 숙우구나 뜬구름이 아니라 마지막 한사람, 땅 한행, 곡식 한포기까지 따져가며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 무슨 의견이 있을수 있었겠는가.

당시 상급기관에서는 선진영농방법을 처음 받아들이는것만큼 농장 논면적의 30%에 먼저 도입해볼데 대하여 포지하였다. 새 농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심중하고 일정한 물질기술적중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영선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꾼들의 생각은 달랐다.

현지에 가보니 선진영농방법이 우월한것은 더 말할나위가 없었다. 이르는 곳에서 모두가 감탄하고 환성을 올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감간이었다.
 그곳 농장들의 이른큰모재배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 이들은 난감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물질적도대가 튼튼한 그 농장들에서는 이른큰모를 골들여 건설한 비밀박막온실에서 키워내고있었는데 석화협동농장의 경우에는 당장 그 돈을 딸수가 없었다. 자금이 엄청나게 들었던것이다.

그런데 일꾼들은 다시 《마식령속도》를 생각하였다.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마식령과 농장별이 따로 있을수 없고 군인들과 농장원들이 달라서는 안된다는 자각을 가다듬었다.
 이런 속에서 그들은 여러 군의 지경을 넘어가면서 모든 농장의 구성구석까지 빠짐

모든 분조들에 수시로 내려갔으며 한가정에 로력자가 한명 있으면, 두명 있으면 농장원세대를 빼집고 찾아가다. 그리고는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진담당책임제를 실시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고 농장원들과 기린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 전체 농장원들중 한명도 빼놓지 않고 머릿속에 당정책이 속속 들어갔다고 하였고 건설적인 의견도 수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포진을 분담한 일꾼들은 처음부터 포기농사에 힘을 넣어 모든 땅에서 용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의 경험은 일꾼들과 농장원대중이 당정책의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철저한 옹호자, 과감한 관철자가 될데 어느 단위에서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 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관리위원장 정영선동무는 최근 농장을 찾는 수많은 농업부문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기 단위 농장원이 천명이면 천리마의 힘을 달고 천리길을 뚫어주는 관철자로서 대중을 이끌어내거나 모든 당정책을 단숨에 기상으로 관철할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마지막 한사람, 한평, 한포기까지

당의 농업정책이 빠른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집행되려면 농장원대중이 그것을 자기의 땅과 함께 그것을 다루는 사람과의 사업이 함께해야 한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진담당책임제를 당정책적으로 짜고들어 실시한 이곳 일꾼들의 사업경향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들은 우선 농장원들의 요구와 리용을 최우선, 전제시하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농장에서 잠정적으로 만드는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진담당책임제시행에서 농장원 만장일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모든 분조들에 수시로 내려갔으며 한가정에 로력자가 한명 있으면, 두명 있으면 농장원세대를 빼집고 찾아가다. 그리고는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진담당책임제를 실시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고 농장원들과 기린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 전체 농장원들중 한명도 빼놓지 않고 머릿속에 당정책이 속속 들어갔다고 하였고 건설적인 의견도 수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포진을 분담한 일꾼들은 처음부터 포기농사에 힘을 넣어 모든 땅에서 용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의 경험은 일꾼들과 농장원대중이 당정책의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철저한 옹호자, 과감한 관철자가 될데 어느 단위에서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 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관리위원장 정영선동무는 최근 농장을 찾는 수많은 농업부문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기 단위 농장원이 천명이면 천리마의 힘을 달고 천리길을 뚫어주는 관철자로서 대중을 이끌어내거나 모든 당정책을 단숨에 기상으로 관철할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특약기자 송창운

풍력과 조수력, 지열, 태양에너지에 적극 개발이용하라!

이들처럼 근기있게 내밀면 덕을 볼수 있다

명남배수리 공장에 가면 하나의 특색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구내뒤산마루의 절망대역에서는 6대의 풍력발전기들이 기운차게 돌아 가고 그아래 산중턱에는 태양발전지판들이 규모있게 배열되어있다.
 이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이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지난 10년동안 충도반담함이 없이 꾸준히 관철하여 그 덕을 토틈히 보고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 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주고 싶건데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사장 김호철동무로부터 풍력의 풍력 및 태양발전지판전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공장에서 지금으로부터 10년전 현대적인 2호조와 동시에 이 풍력 및 태양발전지판전설도 일떠세웠다. 풍력발전기 한대의 발전능력은 10kW이며 태양발전지판은 100개가 넘는데

한대의 면적이 대략 8㎡인 6개의 블로크를 이루고있다. 이밖에 수백개에 달하는 축전지들과 직류-교류변환장치 등 해당 설비들이 갖추어져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리용하는 전력계통도 따로 구성되어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데 의하면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5m/s이상일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며 이곳 해안가에서는 겨울철을 기본으로 하여 년평균 230일정도 전기를 생산한다. 해빙초반이 유리한 산경사면에 설치된 태양발전지판의 실제적인 발전능력까지 합치면 하루에 수백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해당 장치를 통하여 교류로 변환하는데 주파수, 전압을 비롯한 전기의 질적특성이 매우 좋다. 공장에서 이 질 좋은 전기를 리용하는 구내배전계통도 따로 형성하여 지형실과 정보실의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설비들과 교환대, 편의봉사망운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보장한다. 낮조진에서는 생산된 전력을 리용하는것과 동시에 축전지들에 충전하고 밤에

기쁨을 드리었던 발전소가 오늘도 매일도 영연히 전력생산의 동음을 울려야 한다는 투철한 필장에서 그 정상운영에 책임일꾼들부터가 언제나 관심을 돌리었다.
 우선 발전소를 운영하는 작업반을 책임성과 기술기능이 높은 로동자들로 보강해주었다. 작업원들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관철을 위한 중요한 초소를 지켜간다는 긍지를 가슴속에 간직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기술학습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생산지라도 아무리 바쁜 이 곳 일꾼들이 총화시간마다 놓치지 않는것이 있다. 풍력 및 태양발전지판전설비들의 점검보수와 정비, 전력생산과 소비정형을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가는것이다.
 풍력발전소들은 특히 풍력발전기의 정상적인 정비보수와 및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품을 들이였다. 풍력발전기의 주기적인 정비보수에 필요한 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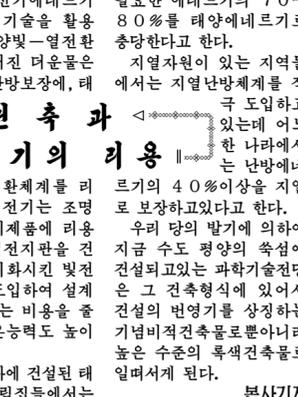
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곳곳에서는 지열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져 눈에 띄는 진전을 가져왔다. 특히 주목되는것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롭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들이 잇따라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는것이다.
 국가지열발전소에서 완성하여 여러 단위들에 도입한 주입순환식지열추출방법은 지하수가 없거나 부족한 지대에서 지열발전방계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높은 효과를 보이고있다. 함흥모방직공부 편직사생산공장에 도입된 지열발전방계를 도입하여 우리 식으로 부단히 세트를 창조해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열의를 느낄수 있다. 이 공장주변에는 지하수원이 비효적 풍부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하수자원을 극력 절약하여 지열발전방계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여 실전에 구현하였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준비를 일으켜야 한다.
 자연에너지를 개발리용은 자금이 투자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당정책에 대한 관점과 사상문제이며 세계를 향해 치밀한 투쟁이라는 내조에게 비약의 박자를 더해주는 애국사업이다. 평명레드, 태양전지공장을 비롯하여 지열, 풍력, 태양열,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의 개발리용으로 덕을 보고있는 단위들을 돌아 보면 하나를 투자하여 열, 백을 얻는다는 의미 말만 아니라 현실로 체험수 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의 일꾼들은 이 단위 들처럼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깊이 명심하고 자기 식의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 실천에 구현해야 한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건국, 문명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함흥물놀이장에서 특색있는것은 물리의 지열설비를 물놀이장의 물을 덥히고 실내온도를 보장하면서 그 운영을 잘하고있는것이다. 함흥남도의 일꾼들은 풍성의 로동계급이 만든 능력이 큰 새형의 지열설비를 함흥물놀이장에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실내물놀이장을 운영할수 있게 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 나가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풍성기 계원합기업소에서 1000kW지열설비들을 생산하여 현실에 도입하고 운영해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고 그 열설비들을 만들어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었다.
 그들은 함흥물놀이장에 나가 지열설비설치와 운영에서 임하는 문제들을 성실성을 다하여 풀어주었다. 함흥물놀이장에서는 이 지열설비를 리용하여 겨울철에도 실내의 수영장과 물놀이장수조의 물온도는 35℃, 실내온도는 25℃로 보장하고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이 지열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본 결과 풍성의 로동계급이 만든 지열설비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고 성능도 아주 좋다는것이 뚜렷이 밝혀졌다.
 특약기자 박동석

최근 전자공업업소 국공기업에서 생산한 새로운 형식의 소형풍력발전기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 풍력발전기는 우선 날개 구조가 독특하다. 날개가 프로펠러식이 아니라 라선식원뿔모양이다. 이것은 종전의 풍력발전기에 비해 바람의 풍속을 2배이상 높일수 있는 근본구조로 된다. 날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소음과 진동이 작은것이 또 하나의 우점이다.
 풍력발전기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풍력발전기는 바다가 없는 물론 내륙지대의 초당 3m이상의 바람이 부는 어디에나 설치하여 리용할수 있다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공장에서는 박희준, 한봉춘, 리경성동무와 같은 기술자, 기능공들로 개발조를 꾸리고 물질보장대책을 적극 펴내세웠다. 특히 부분품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풍력발전기의 제작원가를 극력 줄이며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지난 3월말 새로운 형식의 소형풍력발전기의 시험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 공장에서 태양발전지판에 비해 생산원가가 훨씬 적은 50~300W급풍력발전기들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도대가 그르히 마련되었다.
 본사기자 류성국



자연에너지의 덕을 토틈히

평명레드, 태양전지공장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공장에서 풍력,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구내간조명은 물론 여러 전기설비들까지 가동시키고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태양열물기열기를 가지고 목욕탕과 식당운영에 필요한 더운물을 사시절 보장하고 지열에 의한 평안방계에도 실현하여 덕을 보고있는 공장의 현실은 자연에너지리용의 우월성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화물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세계적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중에서 40~50%를 건축에너지가 차지하는것과 관련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에너지절약을 국가적인 중요하고 고려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는 녹색건축분야는 자연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인 리용을 전제로 하고있다. 여기서 기본은 살림집들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태양 및 지열, 풍력에너지를 이용한다는것이다.
 녹색건축물의 한 형태인 태양에너지건물들은 태양

빛을 열 및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활용하는것이다. 태양열-열전환체에서 얻어진 더운물은 생활용수와 난방보장에, 태양열-전기전환체계를 리용하여 얻은 전기는 조명과 가정용전기제품에 리용된다. 현재 빛전지판 건물지붕과 일체화시킨 빛전지판지붕을 도입하여 설계와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지붕보존능력도 높이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 건설된 태양에너지건물에서는

본사기자

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도록 이끄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가운데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내세우시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평화에 호명하여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동에 단결의 전착으로 맞서나가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국제주의의 구호입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오늘 세계에는 사상과 정권, 체도를 달리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고있지만 그들은 다같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저항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지향하며 옹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세계자주위업의 운명적 과업으로 사활적으로 내세우시고 여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혁명을 주시였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그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기본방도이다.

단결은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홀이 되면 패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며 혁명의 심각한 교훈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 단결하는것은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우심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은 더 많은 나라들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들은 일부 큰 나라, 추종국들과는 그 무슨 《동반자관계》, 《진실한 협조관계》로 꾸미고 하면서 좋게 지내면서도 제 비위에 맞지 않는 작은 나라와 덜 발전된 나라들을 자기의 예속물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적립장이 강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제와 봉쇄를 가하고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는가 하면 《원조》, 《중재》의 간판밑에 여러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면서 계속시키려고 꾀하고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고 서로 반목질시하도록 적극 부추기고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반제 공동전선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에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과업, 방도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 반제공동전선에 굳게 뭉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파고히 벌리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동에 반대한 투쟁을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들의 단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인류공동의 위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분열시켜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침략수법이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

며 그것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본성이 아니라 그 수법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철저히 없애고 단결의 전착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제국주의는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 시대를 다 산 역사의 퇴물에 불과하다.

모든 반제력량이 단결하여 집단적인 반격을 가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은 맥을 추지 못한다.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사소한 기대와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대한 환상은 큰 족목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본성과 정책을 똑바로 꿰뚫어보지 않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외세의 손의 길을 걸었던 나라와 민족들이 처한 파국적운명이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나라들과 평화에 호인민들이 반제공동전선에 굳게 뭉치려면 또한 제도와 사상, 신과 인종 그리고 경제발전수준에 관계없이 자주성에 대한 공통된 지향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특히 호상존중과 대등불간성, 평등과 화해의 원칙에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하여금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적극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도록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였다.

블랙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제

자주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모든 국제문제처리에서 행동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시어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시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위력을 강화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시였다.

역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처럼 현생 인류의 자주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시고 반제자주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정치가, 절세의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의 분열리간책동과 각계각층전력에 단결의 전착으로 맞선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하게 가르치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세계 자주위업수행의 진행에서 강령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불멸의 전리이며 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진보적인민의 역사적과제이다.

진보적인민들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세계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어버이로,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추앙드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세계반제자주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사상도 령도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인 시기에 있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속되고 더욱 친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옹호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절세위인의 품군에 매혹되어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

주제 60(1971)년말 일본기자 다카기 다케오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수십년의 기자생활을 한 전형적인 탐방기자인 다카기 다케오는 남의 눈길이 미치지 않고 남이 손을 대지 않는 문제를 모조리 다뤄서 세상에 파문을 던지기를 갈망하므로 당시 독자대중의 인기를 모으고있었다.

그는 세계정치가운데서 만고의 영웅으로, 절세의 위인으로 떠받들리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뵈고싶은 간절한 소원과 세계에 급속히 파급되는 새로운 사상조류인 주제사상이 조건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개척되었는지 그 핵은 무엇이고 선행한 사상사론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몹시 알고싶은 마음을 안고 우리 나라에 오게 되었다.

다카기는 12월 31일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평양학생소년

들의 설맞이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만면에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궁전에 들어서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웃음을 부여잡고 아이들이 저저마다 《아버지원수님!》 하며 발을 똥똥 구르는 광경을 본 다카기는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네 남매를 두고있는 그 아버지라는 정경은 부름을 왜 부르랴만 수령을 두고 부르는 호칭으로서는 너무도 생소하고 놀라웠다. 일본왕의 행차앞에서 머리조차 들지 못하던 자기 나라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볼 때 그것은 실로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동에 젖어있는 다카기를 몸가짜이 불러주시고 그의 안부도 물어주시며 그와 격식없는 대화를 나누시였다.

위인의 소탈한 인품이 그의 온

몸의 긴장을 순간에 풀어주었다.

다카기는 후에 이날의 감동적인 사상을 자기의 회상록에 이렇게 썼다.

《나는 김일성동지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세심하고도 따사로운 배려가 그 얼마나 뜨겁게 베를베리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느꼈다. 그리고 주제사상을 솔직하고 아무런 격식도 차리지 않으면서 소박한 인간성 그대로 인민들과 접촉하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게 보였다.》

과연 아버지이다. 아버지들이 그이를 아버지원수님이라고 하는대 어린이들만이 아니다. 어린이들을 교양하는 선생님들도 그이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와 아들딸의 관계, 그것은 김일성동지와 이 나라 인민의 관계이다. 주제사상은 인민을 사랑하시며 인민은 그이를 받드는 가장 뜨겁고 동지적인 애정의 결합인것이다.》

전우로 불러주신 송고한 인간애

주제 74(1985)년 8월 에파드 불로마드출판사 사장 움베르토 오르페스 플로레스가 자기 가족과 함께 또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움베르토의 가족일행을 친절히 맞이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오찬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석상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하다고, 굶어서 지고투쟁을 할 때나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도 평범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자신께서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고 감회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자신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장용화원사에 대해서도, 도이 쾰란트의 녀류작가 루이제 린지에 대해서도 회고하시며 나는 당신을 내가 위해서 이 야기한 외국인의 밋들과 똑같은 전우로 생각한다고, 우리들 사이의 우정은 영원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그이를

우르르눈 울메르트는 커다란 충격에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고에 끌리어 매혹되어 다음과 같이 썼다.

《수익만 인류로부터 태양으로 침송받고있는 무서운 보통사람에 지나지 않는 외국의 한 청년과 녀류작가, 출판업군을 전우로, 친구로 높이 불러주시며 고결한 사랑을 부여주시는 송고한 인간애앞에서 나는 머릿속이 얼음수 없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된지 67돛이 되는 날이다.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되었으므로 그후 이날은 세계보건기의 날로 정해졌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도록 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기구는 해마다 세계보건기의 날을 맞아 중요 보건문제들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몽사업과 그 시행을 위한 사업을 세계적범위에서 벌여도록 하고있다.

올해 세계보건기의 날의 주제는 식품안정이다. 식품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식품안전보장사업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요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불량식품들이 적지 않게 생산되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있다.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사료들이 집짐승들에게

이용되고 짐승들속에서 여러 가지 병이 퍼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 소비자들속에서는 축산물로 만든 식품들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있다.

또한 식품첨가제를 망랑 쓰고 식품보관을 잘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사람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위에서 나타나고있는 불량식품, 가짜식품들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선진국들에 대한 협

의 요구에 맞게 이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한성원국으로서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야 한다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재사우회 소속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화책동과 남조선피해들의 종미사대미국행위를 규탄하여 3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통일연구원이 미국의 식민지인 남조선의 실상과 종미사대미국노들의 추태를 폭로하는 백서를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구상에는 200여개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남조선과 같은 미국의 식민지는 없다.

남조선에 《대통령》과 《국회》, 《정부》라는것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가리키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는 식민지 남조선의 실제 총독이나 다름없다.

남조선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철저하게 예속된 미국의 식민지이다.

남조선피해군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는 식민지군용군에 불과하다.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은 살인과 강간 등 온갖 범죄를 감행하여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명백히 말하건대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독점식민지이다. 친미사대주의적인 학관해괴회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21세기형 포락적전략동맹이나 뭐나 하면서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 깊이 전락시키고있다.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개관하여 세계의 수많은 출판물들로 남조선을 가리켜 미국의 《51번째 주》로 야유조소하고있다.

친미사대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남아있는 한 남조선은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영토에 벗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호상존중과 대등불간성, 평등과 화해의 원칙에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하여금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적극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도록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였다.

블랙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제

자주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모든 국제문제처리에서 행동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반제자주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사상도 령도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인 시기에 있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속되고 더욱 친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옹호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이슬라엘인의 체포소동 이슬라엘인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체포소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2일 이슬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라말라시에서 팔레스티나국립사회주의 성원의 집에 뛰어들어 수색을 벌리던 끝에 그를 체포해갔다.

이슬라엘국군은 현재까지 16명의 팔레스티나국립사회주의 성원들을 부당한 구질로 감금하고 있다고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양자 당사자, 양측의 제정으로 돌아가라,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앞으로.

미국의 군사적위협 배격 이란군과 미 무력병참상이 2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미국방장이 이란이 핵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해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한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지역에서 거들떠보는 군사행동의 실패로 빈민

올해 세계보건기의 날의 주제 - 식품안전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도록 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기구는 해마다 세계보건기의 날을 맞아 중요 보건문제들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몽사업과 그 시행을 위한 사업을 세계적범위에서 벌여도록 하고있다.

올해 세계보건기의 날의 주제는 식품안정이다. 식품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식품안전보장사업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요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불량식품들이 적지 않게 생산되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있다.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사료들이 집짐승들에게

이용되고 짐승들속에서 여러 가지 병이 퍼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 소비자들속에서는 축산물로 만든 식품들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있다.

또한 식품첨가제를 망랑 쓰고 식품보관을 잘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사람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위에서 나타나고있는 불량식품, 가짜식품들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선진국들에 대한 협

의 요구에 맞게 이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한성원국으로서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집단안전조약기구 외무상리사회 회의 진행

집단안전조약기구 외무상리사회 회의가 2일 파리에서 21일 까지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성원국외무상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77개집단 베네수엘라인민의 반미투쟁에 대한 지지 표명

77개집단이 최근 베네수엘라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나라의 평화안정과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베네수엘라

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 등 분야에서 성원국들 사이의 전략적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의끝에 성원국외무

상들은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돛과 관련한 성명을 채택하고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내 대외정책과 안전 및 방위문제들에 관한 협상계획에 합의하였다.

엘라가 남남북조강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선언은 이 나라에 대한 국제적연대성 운동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란에서 남새 생산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외무성이 2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테로반대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스리랑카는 온갖 형태의 테로를 반대하며 그와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3월 20일 이 나라 국가통제국이 밝혔다.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에 경제가 0.5% 성장하였다. 3월 20일 이 나라 국가통제국이 밝혔다.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 인권불모지-미국

총기류범죄는 미국에서 만연하는 말세기적인 《총기문화》의 산물이다.

개인들의 총기류소유가 합법화된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미국밖에 없으며 총기류사용은 미국인들의 생활에서 떼어낼수 없는 한부분으로 되고있다.

여러 나라들 협조

로씨야와 요르단이 3월 24일 연립력발전건설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라 로씨야가 요르단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보장 및 폐기물 처리를 맡게 된다고 한다.

일본반동들의 로골적인 군사대국화야망

일본반동들이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무모한 해외팽창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미친듯이 출발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있다.